

# 한국 가계의 소비특성: 습관형성 대 내구성\*

차은영\*\* · 조수진\*\*\*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1999~2004)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최적화 문제에서 효용함수의 기간 간 분리성이 성립하는지, 습관이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습관형성에 관한 계수추정치는  $-0.34 \sim -0.13$ 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에서는 습관형성보다 내구성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는 도구변수 조합에 여러 변화를 주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가계는 과거 소비로부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효용을 얻으며, 과거 소비증가율이 높았다면 이번 기의 소비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주제어: 습관형성, 소비의 내구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 D1

## I. 서 론

합리적 기대를 고려한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 현실에서 소비자의 실제 소비행위를 잘 예측하지 못하며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은 실증분석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sup>1)</sup>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것이 효용함수의 기간 간 부가성(intertemporal additivity)의 가정이다. 기간 간 부가성 가정하에서는 기간분리형(time-separable) 효용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의 소비만이 현재 효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분리성이 효용함수에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득

\*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1저자), 전화: (02) 3277-2797, E-mail: echah@ewha.ac.kr

\*\*\* UCSD 경제학과(제2저자), 전화: (02) 3277-2770, E-mail: sljo@ucsd.edu  
논문투고일: 2008.10.14 수정일: 2008.10.23 게재확정일: 2008.10.28

1) Hall(1978); Campbell and Mankiw(1989, 1990); Hall and Mishkin(1982).

충격 등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조정이나 변동은 과거 소비의 영향 때문에 더욱 느리고 점진적인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

습관형성(habit formation)은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에서 가정한 기간분리형 효용함수를 비판하며 그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등장한 개념이다. 현재 효용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 또는 미래 소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기간 간 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 효용함수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이 개념을 확대적용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습관형성이다.<sup>2)</sup>

전통적 의미에서의 습관형성은 궁극적으로 효용함수가 기간 간에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아 현재 효용이 해당 기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소비지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Deaton(1992)은 습관형성 개념을 효용함수에 도입하면 이제까지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관찰된 소비수준의 변화와 1계 시차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경제주체가 과거 소비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습관을 형성하였을 경우, 이번 기에는 이 습관수준을 넘어서는 현재 소비에 대해서만 효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하면 습관형성이 더 큰 강도로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같은 정도의 효용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해야만 한다.

한편, 효용함수에서 소비의 내구성이 나타난다면 현재 소비가 계속적으로 미래까지 효용을 주게 되어 현재 소비의 효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현재 소비는 미래 소비에 대해서 보완재이기보다는 대체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미래 소비에 비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sup>3)</sup> 소비에 내구성이 있는 경우 경제주체의 이번 기 소비수준이 높았다면 이 소비로 인한 효용이 다음 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이번보다 소비수준을 낮게 결정할 것이다.

과거의 소비가 현재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습관형성 개념은 그 동안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기존 학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실의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하여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해 왔다.<sup>4)</sup> 특히,

2) 소비이론에 습관형성가설을 도입한 초기의 연구는 Duesenberry(1949)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구에서 Duesenberry는 '내부적 습관(internal habit)'과 '외부적 습관(external habit)'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습관을 소개하였다. 후자는 경제주체가 자신이 속한 동료그룹이 가지는 소비패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습관이고, 전자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경제주체 개인의 과거 소비수준에 의해서 형성된 보다 개인적인 의미의 습관이다. 본 연구에서의 '습관'은 내부적 습관에 한정짓기로 한다.

3) Rossi(2005) 참조.

소비분야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습관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는 다소 혼합적이다.

Dynan(2000)은 1974~1987년까지 미국의 PSID 식료품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음식물 소비지출에 습관형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습관형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0에 매우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습관형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Naik and Moore(1996)는 미국 PSID 식료품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Dynan(2000)의 연구와 달리 습관형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uariglia and Rossi(2002)는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의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한 결과 식료품 소비지출이 습관형성보다는 내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의 세 연구는 식료품 소비가 내구재 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비지출 항목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효용을 준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음식물 소비가 타재화와 보완재 또는 대체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위의 연구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5)</sup>

Alessie and Teppa(2004)는 네덜란드의 CSS(center savings survey)자료를 이용한 결과 습관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Rossi(2005)는 이탈리아의 가계패널 SHIW(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wealth)를 사용하여 습관형성보다는 소비의 내구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습관형성에 관한 국내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우현(2001)은 Dynan(2000)의 습관형성모형을 토대로 하여 1993~1998년까지의 대우패널자료와 Arellano and Bond(1991)의 동태패널 자료추정법(Dynamic Panel Data Estimation)

4) 습관형성은 소비에서 excess growth puzzle, excess smoothness, excess sensitivity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에서도 the equity premium puzzle에 도입되었다(Constantinides, 1990). 또 습관형성은 성장론분야에도 활용되었는데 Carroll *et al.*(2000)은 습관형성 개념을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저축률을 이끌어 낸다는 가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또 Boldrin, Christiano, and Fisher(1995)는 2부문모형을 이용하여 기존의 경기변동모형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현실의 생산성장의 지속현상을 습관형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재정정책 분석에서도 습관형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에서의 습관형성 개념을 모형에 적용시키면 재정정책에 대한 현실의 물가상승과 지출변수의 반응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Fuhrer, 2000).

5)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Dynan(2000)을 참조. Attanasio and Weber(1995)의 연구에 따르면 식료품과 여타 비내구재 간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실증분석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식료품 및 외식비에 대한 소비지출, 비내구재지출, 서비스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한 결과, 세 소비지출 항목 모두에서 습관형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가계소비에 습관형성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sup>6)</sup> 하지만 이 연구는 외환위기 전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식료품 및 외식비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식료품이 기타 재화와 완전하게 분리되어 효용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서만 결과가 유효하다.

본 논문은 기간 간의 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1999~200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이용하여 가계소비행동에 습관 또는 내구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효용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이 없는 보다 포괄적인 모형에서 최근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생활비 지출을 이용하였다. 식비지출자료로 가계의 소비패턴을 분석할 경우, 식비가 다른 품목 소비지출과 완벽히 분리가능하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패턴을 왜곡하여 반영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활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이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인 가정이나 제약 없이 가계소비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좀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동일하게 식비 및 식료품비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up>7)</sup>

실증분석 결과 이우현(2001)의 결론과는 다르게 국내소비에서 습관형성보다 소비의 내구성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Deaton(1992)에 따르면 습관형성과 소비는 현재 효용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준다. 특히, 소비가 내구성을 띠면 과거 소비의 효과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효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절 서론에 이어, 제II절에서는 실증

6) 윤재형(2006)이 경기변동모델의 효용함수에 습관형성을 통합하여 그 역할을 분석하였으나, 이는 습관형성의 존재를 전제한 후 생산성 충격에 대한 경기변동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앞서의 문헌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7) 본 연구에서 '식비'는 외식비를 제외한 지출을 지칭하며, '식료품비'는 식비에 외식비 지출을 더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기초적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제Ⅲ절에서는 KLIPS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 및 변수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Ⅳ절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마지막 제Ⅴ절은 결론을 도출한다.

## II. 모 형

실증분석모형은 Dynan(2000) 모형을 기초로 도출한다. 이 모형에서  $S_t = \alpha c_{t-1}$ 의 형태로 습관스톡  $S_t$ 가 바로 지난 기 소비의 일정 비율로 간단하게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습관스톡의 형태이다.<sup>8)</sup>

$i$ 번째 가계는 현재 소비  $c_{i,t}$ 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한다.

$$\max. E_t \left[ \sum_{s=0}^T \beta^s u(\tilde{c}_{i,t+s}; \Psi_{i,t+s}) \right], \quad (1)$$

$$\text{s.t. } A_{t+1} = (1+r_t)[A_t + y_t - c_t], \quad (2)$$

$$\tilde{c}_{i,t} = c_{i,t} - \alpha c_{i,t-1}. \quad (3)$$

여기서,  $\Psi_{i,t}$ :  $t$ 기의 기호변화

$\beta$ : 시간할인율

$\tilde{c}_{i,t}$ :  $t$ 기의 소비서비스

$\alpha$ : 습관형성의 강도

$A_t$ :  $t$ 기의 자산수준

$y_t$ :  $t$ 기의 소득

$r_t$ :  $t$ 기의 이자율

$\Psi_{i,t}$ 는  $t$ 기에  $i$ 번째 가구의 한계효용을 변화시키는 기호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식 (2)는 예산제약식을 의미한다. 식 (3)에서  $\tilde{c}_{i,t}$ 는  $t$ 기의 소비서비스를 나타내는 변수로 과거 소비를 현재와 연결시켜 주는 변수이다.

여기서  $\alpha$ 가 양수일 경우,  $\tilde{c}_{i,t}$ 는 현재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지난 기 소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대로  $\alpha$ 가 음수일 때는  $\tilde{c}_{i,t}$ 가 과거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습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구성인지에 대한 판단은  $\alpha$ 의 추정값에

8) Deaton(1992)의 모형에서  $\theta$ 가 1인 경우에 해당된다.

달려 있다.

탄력성이 상수인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로그를 취해 선형화시킨 후 Muellbauer (1988)의 방법을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sup>9)</sup>

$$\Delta \ln(c_{i,t}) = \gamma_0 + \alpha \Delta \ln(c_{i,t-1}) + \gamma_1 \Delta \ln(\Psi_{i,t}) + \varepsilon_{i,t}. \quad (4)$$

여기서  $\alpha$  값이 0이 아니라면 소비는 항상소득으로 인한 충격에 대하여 습관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더 느리고 점진적인 속도로 조정될 것이다. 가계소비에서 습관이 형성되고 있을 때  $\alpha$ 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번 기의 소비증가율이 지난 기의 소비증가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비가 내구성을 띠고 있다면  $\alpha$ 는 음의 값을 갖게 되고, 이번 기와 지난 기의 소비증가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 Ⅲ. 자료 및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집계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1998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표본 5,000가구와 이 가구를 구성하는 1만 3,321명을 설문하는 것으로 시작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후 1년에 한번씩 시행되어 왔다. KLIPS는 기존 외국문헌에서 사용되었던 PSID 등과 달리 1, 3차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도의 조사에서 소비가 식비, 외식비, 차량 유지비, 주거비 등과 같이 세분화된 항목별로 조사되어 있고, 1, 3차 조사에서도 월평균 생활비 항목은 계속 조사되어 전체가 사용가능하다. KLIPS는 원표본가구 유지비율이 77% 정도로 매우 높아 비교적 많은 가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패널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다만 1차년도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기간의 선정 및 조사항목에 있어 2차년도 이후의 문항과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도 2차년도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1차년도 조사대상 기간인 1997~1998년은 외환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자료는 제외하고 1999~2004년까지 6개년간의 자료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로 세분화된 소비지출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비교적 종합적인 개념의 ‘생활비’ 항목 지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

9) 자세한 식의 도출방법은 Dynan(2000)을 참조.

석하였다. Dynan(2000), 이우현(2001) 그리고 Guariglia and Rossi(2002)의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식료품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뒤 사용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내구재나 서비스 지출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경우 식료품 지출에서 얻는 효용은 타재화에 대한 지출에서 얻는 효용과 완전히 분리가능(separable)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가정은 Hall and Mishkin(1982), Zeldes(1989), Naik and Moore(1996) 등 이제까지 상당수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앞서 주지하였다시피 모형에 또 하나의 제약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 Dynan(2000)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식료품 소비에 대한 지출은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습관형성을 위한 분석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LIPS의 각종 소비항목별 자료 중 우선적으로 생활비 지출자료를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생활비를 묻는 문항의 문구 자체는 각 연도별 설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돈”을 기준으로 응답할 것을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나 TV, 가구 등 내구재(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 구입비는 생활비에서 제외”하며 “또한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한 후 응답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 이 항목에 대해 가계는 구체적인 비용을 만 원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7차년도까지 매해 조사된 생활비 항목은 내구재를 제외한 기타 비내구재 및 서비스 재화소비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액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설문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던 추가적인 가정 없이 일반적인 가계소비행동을 분석하기에 보다 적합한 자료이다.

한편, 기존연구 결과와의 명확한 비교를 위해 식비 및 식료품비 소비지출액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KLIPS 자료에서 1차년도와 3차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년도 자료에서 식비와 외식비가 각각 따로 집계되었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였고, 둘을 합하여 총식료품 소비지출액을 산출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모든 명목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변수로 만든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1차 조사 때부터 포함된 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7차 조사까지 매번 조사에 참여한 가구만을 포함하였다. 한편, 가구주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70세 초과인 가구는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6개년도 조사자료에서 생활

비나 식비 소비지출액을 한 번이라도 0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또한 6개년간 한 번이라도 가계소득과 일괄지불소득이 동시에 모두 0이었던 가구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2,134가구가 1차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sup>10)</sup>

대부분의 패널자료에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존재가 항상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비와 소득의 자료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자료가 만 원 단위까지만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소비 또는 소득값을 알 수 없어 실제로 자료에 측정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운다.

$$\ln(c_{i,t}^*) = \ln(c_{i,t}) + v_{i,t}. \quad (5)$$

여기서,  $c_{i,t}^*$ : 관측치

$c_{i,t}$ : 실제값

$v_{i,t}$ : 측정오차

식 (5)를 이용하여 식 (4)를 관측치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Delta \ln(c_{i,t}^*) = \gamma_0 + \alpha \Delta \ln(c_{i,t-1}^*) + \gamma_1 \Delta \ln(\Psi_{i,t}) + z_{i,t}. \quad (6)$$

여기서,  $z_{i,t} = e_{i,t} + v_{i,t} - (1+\alpha)v_{i,t-1} + \alpha v_{i,t-2}$

위의 식 (6)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되었지만 이 식에서  $\Delta \ln(c_{i,t-1}^*) = \Delta \ln(c_{i,t-1}) + v_{i,t-1} + v_{i,t-2}$ 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설명변수  $\Delta \ln(c_{i,t-1}^*)$ 과 오차항  $z_{i,t}$ 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식 (6)을 그대로 최소자승 추정법(OLS)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도구변수로는, 첫째 가계 전체의 근로소득과 사회보험, 그리고 이전소득을 합하여 구한 가계소득변수를 고려하였다. 가계소득변수는 분석모형에 따라 소득증가율(①')을 도구변수로 이용하고, 소득증가율의 범위에 따라 4개의 더미변수(①)를 만들어 사용하였다.<sup>11)</sup> Dynan(2000)에 따르면, 소득증가율을 도구변수로

10) 분석대상에 따라 실증분석에 포함된 가계의 수에 약간의 차이가 생겼으며, 식비 및 식료품비 분석에 포함된 가구의 숫자가 생활비 분석대상 가구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11) 지난 기 소득증가율의 범위를 네 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y_1$ :  $-10 < \Delta \ln y \leq -5$ .

$y_2$ :  $-5 < \Delta \ln y \leq 0$ .

$y_3$ :  $0 < \Delta \ln y \leq 5$ .



만들어 사용하면 이상치(outlier)가 실증분석 결과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Dynan(2000)의 방법을 따라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증가율(②) 역시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KLIPS 조사에서 모든 소득액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괄지불소득(lump sum income)의 존재 여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이용하였다. 일괄지불소득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존재한다면 일괄지불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일괄지불소득에는 부동산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의 수입에 의해 소비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괄지불소득 도구변수는 다른 도구변수의 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실증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위의 두 변수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든 후 사용하였다.

기호변수  $\psi$ 에는 가계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족구성원수의 변화, 가구주의 성별·연령·가구별 아동 숫자를 포함시켰다. 매 추정식마다 각 조사연도별 시간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 추정법 중 Baltagi(1981)의 Random Effect Error Component Two-Stage Least Squares(EC2SLS)를 이용하였다. EC2SLS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패널자료의 추정치인 Within-Estimator와 Between-Estimator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한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측정 오차 등의 이유로 설명변수와 오차항 사이에 내생성이 존재할 때 편향(bias)을 없애고 일치성을 갖는 추정량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IV. 분석결과

소득증가율 더미변수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생활비 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소비증가율 차분변수의 계수는  $-0.26$ 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현재 소비증가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의 소비수준으로부터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효용이 창출되고 있다는

$y_4: 5 < \Delta \ln y \leq 10.$

〈표 1〉 생활비 추정결과 1

도구변수	소득더미(①)
$\Delta \ln c_{t-1}$	-0.26***(-7.21)
$\Delta familysize_t$	0.10***(9.68)
<i>male</i>	0.02(1.35)
<i>kids</i>	0.02**(2.93)
<i>age of the head</i>	-0.003***(-5.86)
$R^2$	0.1945
<i>Wald test statistics</i>	607.52

주: 1) 괄호 안은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소득더미 외에 (가족구성원수의 변화, 가구주의 성별·연령·가구별 아동 숫자, 시간 더미변수 및 일괄지불 소득더미변수)가 도구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이 6가지 변수는 이후 모든 실증분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가계소비에서 내구성이 습관형성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른 모든 설명변수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될 때, 과거 소비증가율이 10% 정도 증가했다면 현재 소비증가율은 2.6% 가량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기에 걸쳐 동일한 정도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는 과거에 소비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소비수준을 낮추는 선택을 통해 효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나갈 것이다. 가계 특성변수들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 계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 이상의 높은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도구변수 조합에 소득증가율 대신 금융자산증가율을 포함시켰을 때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도구변수로 소득증가율, 또는 소득증가율과 금융자산증가율을 함께 이용하였을 때도 일관된 분석결과를 얻었다. 〈표 2〉는 서로 다른 도구변수 조합을 사용한 분석결과이다.

도구변수 조합의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계수  $\alpha$ 의 추정치는  $-0.23 \sim -0.14$ 의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다. 가계특성변수도 〈표 1〉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가구주의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재 소비증가율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활비 추정결과 II

도구변수	소득더미, 금융자산증가율 (①, ②)	소득증가율 (①')	소득증가율, 금융자산증가율 (①', ②)
$\Delta \ln c_{t-1}$	-0.23*** (-4.27)	-0.19*** (-5.29)	-0.14** (-2.51)
$\Delta \text{family size}_t$	0.09*** (7.10)	0.10*** (9.53)	0.09*** (7.01)
<i>male</i>	0.002 (0.12)	0.02 (1.21)	0.004 (0.23)
<i>kids</i>	0.02** (2.43)	0.01** (2.65)	0.01** (2.13)
<i>age of the head</i>	-0.003*** (-5.21)	-0.002*** (-5.49)	-0.003*** (-4.74)
$R^2$	0.2038	0.1825	0.1691
<i>Wald test statistics</i>	429.35	562.96	166.13

주: 괄호 안은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KLIPS의 생활비 지출자료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효용함수에서 기간 간 분리성은 성립하지 않으며, 과거의 소비수준이 현재 소비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행동은 습관형성의 존재보다는 내구성의 존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과거 소비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효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생활비 지출 실증분석 결과는 Rossi(2005)가 이탈리아 가계패널조사의 생활비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Rossi(2005)의 연구에서  $\alpha$ 의 추정치는 실증분석 방법에 따라 각각 -0.300과 -0.283으로 본 연구에서 구한 값보다 더 작았으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었다.<sup>12)</sup>

실생활에서 과거 소비수준이 내구적 특성을 가지고 현재의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례로 영화를 사서 영화를

12) 본 연구와 동일하게 Rossi(2005)는 이탈리아 가계의 생활비 지출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동성 제약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alpha$ 값은 -0.300이었으며, 유동성 제약이 있을 때는 -0.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추정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Rossi는 이탈리아 가계의 소비에서 내구성이 습관형성보다 우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표 3〉 식비 추정결과

도구변수	소득터미 (①)	소득터미, 금융자산증가율 (①, ②)	소득증가율 (①')	소득증가율, 금융자산증가율 (①', ②)
$\Delta \ln c_{t-1}$	-0.31*** (-3.68)	-0.13* (-1.78)	-0.13 (-1.40)	-0.17* (-1.62)
$\Delta \text{family size}_t$	0.09*** (5.25)	0.08*** (4.17)	0.08*** (4.33)	0.08*** (4.06)
<i>male</i>	0.02 (1.02)	0.02 (0.96)	0.02 (1.05)	0.03 (1.12)
<i>kids</i>	0.01 (1.13)	0.0004 (0.04)	0.004 (0.55)	0.000 (0.01)
<i>age of the head</i>	-0.001 (-1.56)	-0.002** (-2.44)	-0.001* (-1.74)	-0.002** (-2.39)
$R^2$	0.1862	0.1768	0.1702	0.1738
<i>Wald test statistics</i>	45.61	32.98	58.73	31.99

주: 괄호 안은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관람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이것은 분명히 내구재 소비는 아니지만, 과거에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을 때의 기억이 현재까지 남아 그로부터 지속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내구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표 3〉은 앞서와 동일한 순서로 서로 다른 도구변수 조합을 이용하여 식비 지출자료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식비 및 식료품 소비지출 분석의 경우 앞의 생활비 분석보다 표본수가 늘어나 각각 2,176가구, 2,180가구가 분석대상이 되었다.<sup>14)</sup>

식비에서 나타난  $\alpha$ 의 추정치 범위는  $-0.31 \sim -0.13$ 으로 생활비 지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증가율만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외하고는 식비 소비증가율의 차분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비증가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율만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alpha$ 의 추정치는 음수였다.

13) 이우현(2001)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여행이나 치과 치료 등은 그 효용이 소비할 당시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까지도 지속되는 서비스 재화이다.

14) 이것은 생활비 지출을 묻는 문항에는 답하지 않았으나 식비 및 식료품비 지출문항에는 응답한 가구가 소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4〉 식료품비 추정결과

도구변수	소득터미 (①)	소득터미, 금융자산증가율 (①, ②)	소득증가율 (①')	소득증가율, 금융자산증가율 (①', ②)
$\Delta \ln c_{t-1}$	-0.37*** (-5.37)	-0.28*** (-3.33)	-0.19** (-2.43)	-0.24** (-1.62)
$\Delta \text{family size}_t$	0.08*** (5.30)	0.08*** (4.49)	0.07*** (4.50)	0.08*** (4.36)
<i>male</i>	0.03* (1.70)	0.03 (1.46)	0.03 (1.58)	0.04 (1.50)
<i>kids</i>	0.01* (1.82)	0.01 (0.84)	0.01 (1.38)	0.01 (0.83)
<i>age of the head</i>	-0.001 (-1.43)	-0.001* (-1.71)	-0.001 (-1.35)	-0.001 (-1.58)
$R^2$	0.1950	0.1974	0.1875	0.1941
<i>Wald test statistics</i>	72.24	68.69	47.00	63.43

주: 괄호 안은  $t$ -통계량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식비와 외식비를 합친 전체 식료품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식에서 도구변수의 종류와 조합에 관계없이  $\alpha$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범위는  $-0.37 \sim -0.19$ 로 식비만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절대값이 크게 나타나 식료품비 지출에서 내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비 및 식료품비 지출 결정은 타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을 찾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식료품비 지출이 내구성을 갖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고급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을 때 그 곳에서의 기억이 이후에까지 지속적인 만족감 또는 행복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sup>15)</sup> 이처럼 식료품 소비가 심리적인 내구성을 갖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식비만을 분석한 결과보다 외식비를 포함한 식료품비 지출분석 결과에서  $\alpha$ 의 절대값 범위가 대체적으로 더 큰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생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의 식비 및 식료품 소비지출자

15) 더 구체적인 예는 Dynan(2000) 참조.

〈표 5〉 대우패널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구 분	대우패널	KLIPS
2차년도	79%(1994)	88%(1999)
3차년도	66%(1995)	81%(2000)
4차년도	59%(1996)	77%(2001)
5차년도	56%(1997)	76%(2002)
6차년도	44%(1998)	77%(2003)
7차년도	중 료	77%(2004)

자료: KLIPS 7차자료 User's Guide.

료 모두에서 일관되게 소비증가율의 차분변수가 현재 소비증가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내구성을 의미하므로 습관형성이 존재한다는 기존연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습관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게 존재한다고 하였던 이우현(2001)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얻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첫째 분석대상이 되었던 표본가구수가 다르고, 둘째 표본가구 연령구조의 차이, 셋째 분석대상 표본시계열상의 차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우패널조사를 이용한 이우현(2001)은 비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지출 분석에 857가구, 식료품비 지출에 1,359가구가 포함된 표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활비 지출분석에 2,134가구, 그리고 식비 및 식료품비 지출에 각각 2,176 및 2,180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광범위한 가구표본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우패널조사는 KLIPS와 비슷한 수준인 4,547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지막 1998년에는 2,468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표본가구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7차년도 조사에 이를 때까지도 KLIPS는 대우패널조사자료에 비해 훨씬 높은 원표본가구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많은 표본가구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sup>16)</sup>

둘째, 표본가구원 연령분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김대일·남재량·류근관(1999)에 따르면 KLIPS의 조사대상은 가구주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16) 대우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박태근·성태윤(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각 연도마다 전체 표본의 수가 크지 않아 실증분석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편이지만, 전체 가구원을 모두 합하면 여타의 가구조사자료 인구분포에 비하여 KLIPS는 표본가구원 중 청년층의 비중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개인이 아닌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 표본의 구성상 청년층 비중이 높다면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축률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려는 청년층의 일반적인 경향이 전체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 지난 기 소비증가율이 컸을 경우 이번 기 소비증가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분석대상 표본시계열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98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패턴에 실제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8년 이전에는 가계소비에서 습관형성이 우월하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 앞서 언급하였던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버블붕괴 사태 등을 겪으며 점차적으로 소비에서 내구성이 더 강하게 지속되는 방향으로 가계의 소비행동 양상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 V. 결 론

Deaton(1992)에 의하면 과거 소비는 현재 효용에 두 가지 종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째 과거 소비가 습관스톡을 형성한다면 현재 효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둘째 과거 소비가 내구성을 띠어 마치 내구재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효용을 준다면 현재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Dynan(2000)의 모형을 활용하여 2,000여 표본가구의 생활비와 식비 및 식료품비 지출자료를 대상으로 한국 가계의 소비에서 습관형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KLIPS는 내구재 소비를 제외한 생활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식료품 소비는 타재화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효용을 발생시킨다’는 추가적인 가정을 하지 않고도 가계의 일반적인 소비행동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모든 추정식에서 일관적으로 소비증가율이 차분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변수의 변화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습관형성에 관한 계수추정치는  $-0.34 \sim -0.13$ 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탈리아 가구패널을 대상으로 습관형성 여부를 분석한 Rossi(2005)의 연구에서 얻었던 계수추정치와 유사한 범위이다. 그러므로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은 습관보다는 내구성이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 가계소비에 실제로 내구성이 존재한다면 재정정책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ndner(2000)가 보인 바와 같이 소비함수에 습관형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아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7)</sup> 소비에서 내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현재 소비가 현재 효용에 대해 대체재가 되고 한계대체율이 높아져 경제주체가 미래소비에 비하여 현재 소비를 늘이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을 사용할 때, 소비의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도한 결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석대상이었던 1998~2003년 사이에는 외환위기(1998)와 신용카드 버블 붕괴(2002)라는 경제적 충격이 존재하였다. 이 경우 가계는 상당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하의 소비행위가 내구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류근관·김대일·남재량,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 이탈자의 특성 연구」, 『노동경제논집』 23, 한국노동경제학회, 2000, 1~33.
- 박대근·성태윤, 「한국의 개인 연령별 저축률 추정」, 『한국경제연구』 제17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 149~167.
- 윤재형, 「소비 습관과 실물경기변동 모델」, 『한국응용경제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49~69.
- 이우현(2001), 「가계소비와 습관형성」, 『경제학연구』 제49집 제4호, 151~166.
- 조수진(2007), 「습관형성가설과 가계소비: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 이화여

17) Wendner(2000)는 습관이 형성될 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한계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ltagi, Badi H., "Simultaneous Equations With Error Component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17, 1981, 189~200.
- \_\_\_\_\_,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Third Edition, John Wiley & Sons, Ltd., 2005.
- Boldrin, M., L.J. Christiano, and J. Fisher, "Asset Pricing Lessons for Modeling Business Cycles," NBER Working Paper 5262, 1995.
- Campbell, J. Y. and N.G. Mankiw, "Consumption, Income and Interest Rates: Reinterpreting the Time Series Evidence,"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9*, 77, 1989, 185~216.
- Carroll, Christopher D., "Solving Consumption Models with Multiplicative Habits," *Economic Letters*, Vol. 68, 2000, 67~77.
- \_\_\_\_\_, Oeverland, Jody and David N. Weil, "Saving and Growth with Habit 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3, 2000, 341~355.
- Constantinides, George M., "Habit Formation: A Resolution of the Equity Premium Puzzl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3, 1990, 519~543.
- Deaton, Angus, *Understanding Consump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Duesenberry, J.,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 Dynan, Karen E., "Habit Formation in Consumer Preferences: Evidence from Panel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3, 2000, 391~406.
- Ferson, W. and G. Constantinides, "Habit Persistence and Durability in Aggregate Consumption: Empirical Tes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9, 1991, 199~240.
- Fuhrer, J.,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Monetary-Policy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2000, 367~390.
- Guariglia, Alessandra and Rossi Mariacristina, "Consumption, Habit Formation, and Precautionary Saving: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Data," *Oxford Economic Papers*, Vol. 54, 2002, 1~19.
- Hall, Robert E., "Stochastic Implication of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1978, 971~987.

- Hall, Robert E. and Frederic S. Mishkin, "The Sensitivity of Consumption to Transitory Income: Estimates from Panel Data on Households," *Econometrica*, Vol. 50, 1982, 468~481.
- Modigliani, F. and R. 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the Cross-Section Data," in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54, 388~436.
- Naik, Narayan Y. and Micheal J. Moore, "Habit Formation and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Individual Food Consump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8, No. 2, 1996, 321~328.
- Rhee, Wooheon, "Habit Formation and Precautionary Saving: Evidence from Korean Household Study,"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29, No. 2, 2004.
- Rossi, Mariacristina, "Households' Consumption under the Habit Formation Hypothesis. Evidence from Italian Households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Wealth(SHIW)," *Economics Discussion Paper*, Vol. 595, University of Essex, 2005.
- Wendner, Ronald, "A Policy Lesson From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of Habit Persistence," Burch Center Working Paper No. B00-02, 2000.
- Zeldes, Stephen P., "Consumption and Liquidity Constrai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305~346.

[Abstract]

## The Consumption Behavior of Korean Household: Habit Formation vs. Durability

Eun Young Chah · Soojin Jo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ime separability in preference works and the existence of habit formation in Korean households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estimate of the coefficient on habit formation is between  $-0.34$  and  $-0.13$ , which implies that Korean household's consumption exhibit durability instead of habit persistence. That is, if the current level of consumption is high, decisions will be made to decrease the future level of consumption, as Korean households seem to gain constant utility from past consumption as well. This result was consistent even with a number of changes in the instrumental variables combination.

**Keywords:** habit formation, durability of consumption

**JEL Classification:** E2, D1

---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